

# 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7월 2차 (2019.7.16.~ 7.31)



## 주요 현안



### 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시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 여성가족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6275호)이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1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645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6451)

###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서비스의 통합 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7월 16일(화) 출범

-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기관으로, 요보호아동지원(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요보호아동자립지원(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실종대응(실종아동전문기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7.16.]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180](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180)

## 성범죄 신고 여중생 사망까지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만12세, 이하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이 신고한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 신고이후 사망까지 피해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살피는 노력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고 판단,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권고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7.18.]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321>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인공지능(AI)이 돕는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7월 22일(월)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재)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2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6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63)

##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 계획 발표
- 9월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7.22.]  
[http://www.mohw.go.kr/react/al/saI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248](http://www.mohw.go.kr/react/al/saI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248)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3인)	2019-07-12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2인)	2019-07-12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출생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호 강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2019-07-15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2019-07-15	현행법에서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실무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직접 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입양의 주체로 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강화하되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9조 후단에 따라 현재 입양기관의 실무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또한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새로이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현행법 적용상 발견된 미비사항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을 충분한 소득과 재산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일지라도 형식적인 재산기준에 따라 입양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점 등을 보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2019-07-19	아이돌봄미의 자격취소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개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의원 등 11인)	2019-07-22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 도모
일·생활 균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의원 등 11인)	2019-07-22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 촉진
젠더 폭력·안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2019-07-16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도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위탁실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2019-07-17	현행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이 법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주거침입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 성폭력 무고 비율 매우 낮은 수준(0.78%)<sup>1)</sup>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무고 고소, 대부분 불기소(84.1%)로

성폭력 범죄 피의자 대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0.78%

무고 기소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므로, 성폭력무고 유죄 인원수는 더 적을 것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은 검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통해 성폭력 무고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수사사건 처리 실제 사례를 통해 무고사건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짚고, 새로운 성폭력 범죄분류안을 통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높이는 논의를 위해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에 대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함.

- 1) 2017-2018 검찰에서 처리한 전체 성폭력범죄 피의자수는 80,677명인데 이중 타관이송의 경우 일부 중복이 있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관련 명수 8,937명을 제외함. 실제 단순 성폭력무고에 대한 기소사건 비율은 0.68%에서 0.78% 사이 일 것으로 추정함.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주요 언론보도

연번	날짜	매체명	제목	링크
1	7.19	KBS	고소당한 '성폭력 고소' 100명 중 94명 무죄... '압박 수단' 악용되는 무고죄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6128&amp;ref=A">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6128&amp;ref=A</a>
2	7.19	KBS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 유죄는 6%대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5837&amp;ref=A">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5837&amp;ref=A</a>
3	7.19	MBC	성폭력 무고 비율, 전체 고소 사건 중 6.4%	<a href="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3043_24698.html">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3043_24698.html</a>
4	7.21	MBC	성범죄 '무고' 고소 급증... 10건 중 2건만 '기소'	<a href="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15640_24634.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15640_24634.html</a>
5	7.19	OBS	성폭력 무고 10건 중 8건 불기소... 맞고소 남발	<a href="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872">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872</a>
6	7.19	경향신문	성폭력 가해자 '무고' 남발... 10건 중 8건이 불기소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92112015&amp;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92112015&amp;code=940301</a>
7	7.19	경향신문	"성폭력 무고 사건, '유죄'는 6.4%에 불과"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91049001&amp;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91049001&amp;code=940100</a>
8	7.21	경향신문	[사설]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남용 막을 대책 강구해야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12037005&amp;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12037005&amp;code=990101</a>
9	7.19	한겨레	"성폭력 무고 사건 기소율, 성범죄 건위 0.78%뿐... 가해자 방어수단으로 쓰이면 안 돼"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256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2561.html</a>
10	7.19	한국일보	성범죄 가해자의 '무고 남발'... 고소해도 유죄 6.4%에 불과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91069799396?did=NA&amp;dtype=&amp;dtypecode=&amp;prnewsid=">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91069799396?did=NA&amp;dtype=&amp;dtypecode=&amp;prnewsid=</a>
11	7.19	서울신문	성폭력 무고 고소, 유죄로 확인된 것은 6.4%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9500075&amp;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9500075&amp;wlog_tag3=naver</a>
12	7.19	국민일보	성범죄 무고 고소 많은데... 유죄 판결은 100명 중 6명에 불과	<a href="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013515520&amp;code=61121311&amp;cp=nv">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013515520&amp;code=61121311&amp;cp=nv</a>
13	7.19	머니투데이	검찰 '성범죄 무고 고소 사건 중 유죄는 6.4%... 고소 남용돼'	<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918512980911">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918512980911</a>
14	7.19	아시아경제	성폭력 무고 유죄 사례 6.4% 불과 "무고 고소 남발"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909465036848">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909465036848</a>
15	7.19	머니투데이	검찰, '성폭력 무고죄 분석' 포럼 열어... 무고죄 유죄는 6.4%	<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909298269707">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909298269707</a>
16	7.19	아시아경제	대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910134090873">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910134090873</a>

17	7.19	여성신문	성범죄 중 무고 40%라고? 실제로는 0.78%... “가해자 역고소 남발이 문제”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869">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869</a>
18	7.19	아주경제	여정원, ‘성폭력 무고 혐의 고소 사례 중 6.4%만 유죄’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190719084257405">https://www.ajunews.com/view/20190719084257405</a>
19	7.19	BBS NEWS	검찰-여정원, 성폭력 가해자 무고죄 사례 분석...피해자 보호대책 논의	<a href="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618">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618</a>
20	7.19	연합뉴스	성폭력 무고 10건 중 8건은 불기소...‘맞고소 남발’이 원인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091700004?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091700004?input=1195m</a>
21	7.19	뉴시스	‘성범죄 무고’ 기소율 1%도 안된다...‘고소만 남발해’	<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9_0000715879&amp;clD=10201&amp;pl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9_0000715879&amp;clD=10201&amp;plD=10200</a>
22	7.19	뉴스1	성폭력 ‘무고죄 고소’ 사건, 10건 중 8~9건은 ‘불기소’	<a href="http://news1.kr/articles/?3674432">http://news1.kr/articles/?3674432</a>
23	7.19	뉴스1	성폭력 피해자 2번 올리는 무고죄...10명 중 8명 ‘불기소’ (종합)	<a href="http://news1.kr/articles/?3675039">http://news1.kr/articles/?3675039</a>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보도일	매체명	제목	링크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07.06	한국일보	[D스토리] ‘성’에 대해 잘 안다는 중학생, 실제 성 지식은 낮은 수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154200797?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154200797?input=1195m</a>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패와 개선방안	07.13	한겨레	온몸 멍들고 갈비뼈 부러져도...‘가정 평화’가 우선?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679.html#csidx56396320c62ca0dabdbe968ffdfef8f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679.html#csidx56396320c62ca0dabdbe968ffdfef8f3</a>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07.18	세계일보	20만명 동의 국민청원 40%가 ‘젠더 이슈’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a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190717510155?OutUrl=naverl">http://www.segye.com/newsView/20190717510155?OutUrl=naverl</a>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07.16	노컷뉴스	성범죄, ‘디지털’과 결합해 일상을 위협하다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183084">https://www.nocutnews.co.kr/news/5183084</a>
	07.19	노컷뉴스	‘유희’로 치부되는 ‘성범죄’...경찰조사 “뭐가 문제냐?”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185326">https://www.nocutnews.co.kr/news/5185326</a>
	07.22	노컷뉴스	오해 부르는 ‘리벤지 포르노’ 아니라 ‘비동의 성적 영상’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186123">https://www.nocutnews.co.kr/news/5186123</a>
한국사회 성평등 인식조사	07.22	머니투데이	‘팬스름이 최고’...‘반갑’ 커지는 20대男, 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909394544440">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909394544440</a>

주요 연구자 언론활동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연구자	링크
07.17	BBS	피임약 광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피임약 광고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a href="https://www.bbc.com/korean/news-49013132?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https://www.bbc.com/korean/news-49013132?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a>
07.17	세계일보	[단독] 경제난·미혼 출산 등으로 버려진 아동 크게 늘었다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a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190717510402?OutUrl=naver">http://www.segye.com/newsView/20190717510402?OutUrl=naver</a>

유관기관 연구동향

한부모의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 별도 규정 마련 방안(국회입법조사처)

☑ 해외 한부모가족 대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2019.07.22.]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5548&cmsCd=CM0155](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5548&cmsCd=CM0155)